

노사상생으로 지역경제 활로 찾자

■기아차 상생문화 정착돼야

협력업체 “車 종사자 5% 파업에 95% 생존 위기”

광주공장 쏘울·봉고트럭 물량 적체 심각
市·상의 등도 노사 합의 파업 철회 촉구

기아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본교섭이 9차례 진행됐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광주공장의 생산적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노조의 5차례에 걸친 부분파업과 잔업 및 주말특근 거부는 기아차에서도 물량 적체가 심한 광주공장에 가장 큰 피해를 안기는 중이다.

5일 기아차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현재 쏘울 2만6000여대, 스포티지R 2만7000여대, 봉고트럭 2만1000여대, 카렌스 1만 여대 등 8만7000여대의 생산량이 밀려있다. 8월 들어 가동된 62만대 생산체제는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멈추면서 적체물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3공장에서 생산하는 봉고트럭 및 광주1공장에서 생산하는 신차 'PS'(쏘울 후속모델, 10월 국내 출시)의 적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북미시장에서 인기 높은 쏘울 후속모델의 초기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 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봉고트럭 또한 노조의 거부로 증산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까지 들어가 차를 주문한 고객

들은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봉고트럭의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1300대를 생산하지 못해 17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번 여름 일찌감치 임금협상을 매듭지은 가운데, 기아차의 파업 사태를 지켜보는 지역경제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광주 소촌공단의 기아차 1차 부품 협력사 관계자는 “광주공장이 부분 파업을 하면 우리 회사의 경우 하루 매출이 평소보다 절반 가량 감소한다”며 “규모가 더 작은 2·3차 협력업체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5%에 불과한 기아차 노조가 파업하면 나머지 95%는 생존의 문제에 직결하게 된다”며 “노조의 이기적인 파업 사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역사회도 조속한 협상타결 촉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공장을 방문, 노사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협상타결을 당부했고, 광주상공회의소는 다음날인

28일 “노사간 임금교섭 결렬과 파업은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며 파업철회 및 노사합의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21일에도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성명을 내고, “기아차 노조는 이제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기업의 생존과 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심각히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파업철회를 요구했다. 2013년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에서 매출규모로 보나 임금수준으로 보나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입사 00명 매출 대학”이라는 플래카드가 대학 입구에 붙는 것을 보더라도, 기아차 광주공장이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서 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끼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의 파업도 환영받을 수가 없다”며 “노조가 진정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송이버섯 맛 보세요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한 여성고객이 자연산 송이버섯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인공재배가 불가능해 제철이 아니면 쉽게 맛볼 수 없는 자연산 송이버섯은 향긋한 냄새와 쫄깃한 식감이 별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세관, 수출기업 FTA 컨설팅 지원

광주본부세관이 관내 수출기업 FTA 컨설팅 지원 사업에 나섰다.

5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운근)은 지난 4일 'FTA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갖고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제2차 중소기업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세청에서 지정된 FTA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미국, EU 등 FTA 계약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상대국의 검중에 적절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대응 요령, 질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비용은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세관 통관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e메일(smkim@cus-toms.go.kr) 접수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정위,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또 제동?

수정안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금호산업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출자전환이 상호출자금지예외(대물변수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호석유화학의 질의가 있어 해당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률 12.6%)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방식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냈다가 공정위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되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790억원 상당)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 9.5%)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파는 수정안을 내놔다. 다만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 상호출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출자 예외사유에 해당해야만 수정안 추진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석화의 질의와 관련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지만 의견수렴과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상호출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채권단 결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이날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채권단의 75%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연광뉴스

만 의견수렴과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상호출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채권단 결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이날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채권단의 75%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연광뉴스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

노조 저지 이틀째 출근못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한 노조의 원천봉쇄로 취임식을 치르지 못한 광주은행 김장학 신임 행장이 이틀째 노조원들로부터 출근을 당했다.

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김 행장은 이날 오전 임원들과 조찬을 한 뒤 8시 55분께 광주은행 본점에 출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원 30여명이 현관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상채 노조위원장과 잠시 면담을 한 뒤 되돌아 갔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지역민들이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안을 보여달라. 광주은행이 중심이 된 민영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오늘은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행장은 “민영화의 성공적인 달성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돌아갔다.

전날 현관 진입 과정에서 청경과 노조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달걀과 밀가루가 난무하는 소동이 빚

어졌던 것과 달리 이날 김 행장은 노조위원장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별다른 마찰 없이 발걸음을 뒤흔들었다.

김 행장은 시내 모처에서 임원들로부터 업무과락을 위한 보고를 받는 등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김 행장이 광주은행이 주체가 된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김 행장의 취임식과 출근은 한동안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전날 협박한 분위기와는 확실히 대조를 보여 일각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조만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혹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돼 매각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노조나 김 행장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노조 한 관계자는 “어제와 다르지 않으나,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온누리상품권 판매 뚝

작년비해 80% 줄어...판매량 전국 최하위권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액이 80% 이상 감소해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5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을 집계한 결과 광주 23억6200만원, 전남 30억7600만원으로, 광주·전남에서 모두 54억3800만원 어치가 팔렸다.

하지만 이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303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82.1%(248억6900만원)나 줄어든 수치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272억2100만원이 팔렸지만 올해는 30억7600만원으로 판매액이 뚝 떨어졌다. 광주지역도 지난해 30억8600만원에서 올해 23억6200만원으로 23.5%나 줄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상품권 구매에 소극적인 데다 율령 폭염과 일반 방문객은 유출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등 판매 여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 7월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광주 15위, 전남 13위 등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이 전국 3위였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3% 할인과 연말 소득공제 때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다양한 행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에 발벗고 나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성사!**
결혼성사시까지...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원장 출연)

성사를
호남 1위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업, 전주고등학교출업]

서울대학교충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男 女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男 女

의사, 변호사	32~6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술산 여성’ 희망	33~48세	‘무차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